

외국인 관련단체 ①

가산이주노동자상담센터

이주민 노동문제 사업주 부정적 시각 바뀌어야

자치단체나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제도 필요

포천시 외국인 현황은 2005년 12월말 현재 7천200여명으로 중국 1천213명, 필리핀 966명, 베트남 495명, 태국 832명, 기타 3천700여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불법체류자들을 포함하면 3만여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이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도움을 주고 있는 관련단체들의 여론이다.

본지는 이미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살고 있는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관련단체를 찾아 활동현황 및 앞으로의 과제 등을 연재기로 했다. (편집자주)

실시했으며 무료급식 및 생필품 지원, 한글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곳에는 종교가 같아 주로 필리핀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의 공동체의 센터로 5월에는 6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필리핀 산타루루산 축제를 개최하고 포천거주 필리핀 근로자 농구리그, 포천외국인 근로자 한마음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한마음체육대회는 포천신문사와 포천로타리를 팀, 포천의료원 공동주최로 한국, 필리핀, 인디아 등 3개국 체육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가산이주노동자센터 김윤리아나 수녀를 만나 주요활동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들었다.

하는 바램이다. 특히 송우리 사우나 시설에는 '외국인 사절'이라는 안내문은 인종차별의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연말에 특별한 활동을 했다는데?

지난해 연말 성탄절 이브인 24일 외국인들이 중심이 되어 캐롤송을 양로원과 병원을 방문하여 불러주자 환자와 노인들이 너무도 좋아했다. 외국인 근로자도 한국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성탄절 25일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은 쉴 수가 없다. 외국인 노동규정에 일요일에만 쉴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주들이 필요일이기 때문에 일을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는 것이다.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앞으로 활동계획은?

포천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공회 포천나눔의 집과 송우리 문화센터, 송우교회, 포천외국인 근로자복지센터 네트워크를 형성해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적, 제도



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실제로 2천여만원의 급식비가 필요한데 200만원 지급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활동에 따른 애로사항은?

노동문제 발생시 상담소의 역할에 대한 사업주의 부정적 시각과 노동자를 위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정 부족문제와 인력부족, 다양한 외국인 근로자와의 언어소통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건의사항이 있다면?

포천 관내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과 타문화 이해를 돕는 교육이 필요

추천! 이야기 한마당 잘사는 사람이 되자



이보용

본지 자문위원

세월은 가는 것도, 오는 것도 아니며 시간 속에 사는 우리가 가고 오고 변하는 것일 뿐이다. 세월이 덧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덧없는 것이다.

해가 바뀌면 어린 사람은 한 살 더해지지 만 나이는 사람은 한 살 줄어든다.

되찾을 수 없는 게 세월이니 시시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순간 순간을 후회 없이 잘 살아야 한다.

인간의 탐욕에는 끝이 없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른다. 행복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가진 것만큼 행복한 것이 아니며, 가난은 결코 마덕이 아니며 '맑은 가난'을 내세우는 것은 탐욕을 떨리기 위해서다.

가진 것이 적든 많은 덕을 닦으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가난하다면 잘 살아야 한다. 돈은 혼자 오지 않고 어두운 그림자를 데려오니 재산은 인연으로 맡은 것이니 내 것도 아니므로 고루 나눠 가져야 한다. 우리 모두 부자가 되기보다는 잘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법정스님 (문의 011-342-5834)

“다함께 새해맞이 소원빌어요”

영북면, 은장산 새해맞이 행사



1월1일 영북면 기수연합회와 대회산리 청년회는 영북면사무소와 영북농협의 후원으로 영북면 대·소회산리 소재 은장산에서 주민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해진 새해맞이 행사를 개최했다.

영북면 주민들이 한데 모여 새해를 맞이했다. 1월1일 영북면 기수연합회(회장 김재영)와 대회산리 청년회(회장 최만규)는 영북면사무소(면장 배상택)와 영북농협(조합장 이상용)의 후원으로 영북면 대·소회산리 소재 은장산에서 주민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해진 새해맞이 행사를 개최했다.

새벽 5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행사는 영북면사무소에서 대기중인 차량 7대(25인승 6대, 45인승 1대) 및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대회산리로 이동, 등산로를 통해 가족·단체별로 이동하여 은장산 정상에서 새해맞이, 무사평안 기원제, 소망기원 풍국 나누어 먹기 등 순으로 진행됐다.

배상택 영북면장은 인사말에서 “대·소회산리가 영북면에서도 소외된 지역이라 등산로 개발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보자는 취지에서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를 준비

하여 이번 은장산 해맞이 축제를 하게 된 것으로서 이 행사를 계기로 주민들의 이완된 분위기를 화합하는 분위기로 전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김재영 기수연합회장은 “은장산을 중심으로 대·소회산리 등 낙후된 지역의 운전 관광자원을 이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여 지역의 단합과 화합을 목적으로 이번 행사를 추진하게 된 것이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칼라TV, 전기밥솥, 전자렌지, 진공청소기, 감치냉장고, 세탁기 등 푸짐한 경품이 제공되기도 한 이번 행사는 당초 참석인원을 500여명으로 예상하여 준비했으나 1,0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하여 큰 관심과 호응을 받은 축제로 평가되고 있다. 김미경 주부영예기자단 영북면지부장 hsd5333@hanmail.net

철저한 정비와 방어운전 무사고 비결

제8보병사단 전차대대 수송부 무사고 10년 운행

육군 제8보병사단 예하 전차대대 수송부는 1월4일 무사고 운행 10년의 대기록을 달성했다.

8사단 전차대대는 1월3일 전차대대 수송부 장병과 전역병 및 인접 수송관계관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차량무사고 10년 달성을 축하하

는 기념행사를 갖고 대기록 달성까지 부대를 거쳐 간 선배전우들의 노고를 되새기고 부대장병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지휘관 주관으로 차량운행 약사보고, 유공자 표창수여, 6천km 무사고 운전병 배지 수여식,

다과회, 체육행사 및 단결활동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무사고 기록은 1997년1월4일 이후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수립된 기록으로 운행거리만 약 168만7천500km로 서울과 부산을 약 2110회 왕복하는 거리다.

부대는 그동안 안전운행을 위해 철저한 차량정비와 매일 아침 검차 및 운전병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으며 운행전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의 점검구간을 따로 거쳐 운행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출발시키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차량 무사고 10년을 달성한 전차대대 수송부 정승태 상사(35)는 “오늘의 큰 성과는 선배들의 노력으로 쌓아올린 빛나는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아 무사고 운행을 실현한 부대 전 장병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라며 “이번 무사고 대기록을 바탕으로 전군에서 가장 뛰어난 수송부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산정호수 얼음위 걸던 40대 남자 사망

구출하던 마을 3명 물속 빠져 구조



2일 오전11시50분경 산정호수 얼음위 걸던 이 모씨(47세)가 얼음속에 빠져 숨지고 3명이 구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건을 목격한 김 모씨에 의하면 11시50분경 산정리에 거주하는 이 모씨가 얼음위로 뒤덮인 산정호수를 가로질러 걸다가 얼음이 깨지면서 물속에 빠졌다. 이 광경을 목격한 조카와 친구, 보트장 근무 직원 등 3명이 이씨를 구조하려 들어갔다. 그러나 이들은 깨진 얼음 사이에서 나오지 못하고 허우적대다가 출동한 포천시민안전봉사대와 포천소방서 영북119안전센터 직원에 의해 구조됐다.

구조직후 응급조치를 마치고 영북 성심외과와 철원길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이 모씨가 저체

온증을 이기지 못하고 숨졌다.

구조에 참여한 손병락 시민안전봉사대장은 “물속에 빠진 4명을 구조하고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한 후 병원으로 이송했다”면서 “그러나 이모씨는 얼음물 속에 15분정도 있어 저체온증을 이기지 못하고 숨졌으며, 나머지 3명은 무사하다”고 말했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차량 무사고 10년을 달성한 전차대대 수송정비관 정승태 상사(좌측 아래에서 두 번째)와 수송부장병들

HD, PE, PP 원단생산
쇼핑백·비닐인쇄가공
각종 공업용 포장자재 전문

대일비닐총판

취급 품목

비닐, 락카, 이형제, 실리콘, 면장갑, 반코팅 장갑, 완전코팅 장갑, 고무장갑, PVC장갑, 램, 장화, 물장화, 보류, 작업복, 보호 테이프, 각종 테이프, 각종 끈, 수동밴드, 자동밴드, 마대, 마스크 등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282-12

☎ 031) 544-3627 FAX. 031) 544-3637

HP. 011-9070-3627

대표 : 김영재

